

주행·디자인·첨단기능까지… 완벽한 ‘집합체’



벤츠 신형 E-클래스

제어·인포테인먼트 등 기능 진화
중앙서 조수석까지 스크린 연결
내비게이션 ‘티맵’ 하반기 적용
부드러운 주행감·연료 효율성 ↑

‘국내 최초 수입차 단일 모델 20만대 돌파, 하루 100대 넘게 팔린차, 8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

메르세데스-벤츠의 상징적인 모델 E-클래스가 국내 시장에서 세운 기록들이다. E-클래스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럭셔리 세단의 고급스러움의 정수를 보여준 모델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시승을 통해 만난 11세대 E-클래스는 고급스러움을 넘어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한국소비자들이 E-클래스에 열광하는 이유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역을 출발해 경기 파주까지 편도 65km 구간을 E클래스(E300 4MATIC 익스클루시브)의 시승을 진행했다.

신형 E-클래스는 주행성과 디자인은 물론 첨단 기능을 대거 적용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불



메르세데스 벤츠 E300 4MATIC 익스클루시브 전 측면.

/양성운 기자

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각종 차량 제어 및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진화했다.

우선 차량에 탑승하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건 중앙에서부터 조수석까지 연결된 스크린이다. 차량에 탑재된 MBUX 슈퍼스크린은 중앙 디스플레이와 조수석 디스플레이를 이어 제작됐다. 조수석 탑승객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행중에도 유튜브나 웨이브 등 영상 콘텐츠 시청은 물론 화상회의나 멜론, 애플 뮤직, 앵그리버드 게임 등 다양한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영상 콘텐츠의 경우 운전자가 모니터를 바라볼 경우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설

계해 안전성을 높였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 등 별도 기기와 따로 테더링을 해야한다는 점과 국내 도로 상황에 최적화된 내비게이션 ‘티맵’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루틴’도 새롭게 추가됐다. 실내 온도와 시트 열선, 통풍 등을 설정해 편의성을 높였다. 실제 시승 전 주행 중 11분 후 엠비언트 라이트 색상 변화, 시속 100km 초과시 섀루프 오픈, 외부 온도 7도 미만시 시터 히터 작동 등을 설정했다. 주행 중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차량 스

스로 상황에 맞춰 작동하면 운전자의 불편한 움직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행성능은 부드러움과 편안함 그리고 필요에 따라 거침없는 매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특히 11세대 E-클래스는 벤츠의 고급스럽고 정숙한 주행성능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출발시 매끄러운 가속을 이어갔으며 제동도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반응했다. 고속 구간에서도 부족함 없이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주행을 이어갔다. 차량에 탑재된 4기통 가솔린 엔진(M254)이 최대 출력 258마력과, 최대 토크 40.8kg·f·m의 성능을 제안하고, 동시에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은 부드러운 주행감과 연료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노면소음과 풍절음 등 외부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벤츠 측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전체적인 차량 형태부터 A-필러 및 사이드 미러의 각도 등을 세밀하게 설계했으며 이중접합 유리 및 방음재 등을 고루 사용해 정숙성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신형 E클래스는 국내에 총 7개의 라인업으로 운영되며 가격은 7390만~1억2300만원이다. 이날 시승한 E300 익스클루시브는 899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구자균 LSI일렉트릭 회장이 LSI이모빌리티솔루션 멕시코 두랑고 공장을 찾아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다.

LSI이모빌리티솔루션

멕시코 두랑고 공장 준공식 “미래 사업 한층 담당할 것”

구자균 LG일렉트릭 회장이 북미 전기차 거점을 찾아 미래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LG일렉트릭은 멕시코 두랑고 LSI이모빌리티솔루션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 공장은 북미 시장을 공략할 교통 중심지에 위치했으며, 연면적 약 1만평 규모에 EV릴레이 500만대, BDU(Battery Disconnect Unit) 400만대 생산 능력을 갖췄다. LSI이모빌리티솔루션이 물적분할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구축하며 세번째 생산 거점으로 낙점했다.

LSI이모빌리티솔루션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북미 빅3 자동차 메이커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추가 투자를 통해 현재 EV릴레이, BDU(Battery Disconnect Unit) 생산라인을 증설해 오는 2030년 북미 매출 7000억 원, 전사 매출 1조 2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구자균 회장은 기념사에서 “LSI이모빌리티솔루션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과감하고 빠르게 생산 거점을 확보한 만큼 그 성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기화 시대를 맞아 전기차 사업에 대한 투자는 필수로 인식되는 만큼 LSI이모빌리티솔루션이 북미 최고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성장해 미래 핵심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SKT 영업익 8.8% ↑… “5G 둔화, AI 수익화로 돌파”

올해 매출 17조9000억 목표 에이닷 누적 가입자 340만

SK텔레콤이 지난해 인공지능(AI) 피라미드 전략에 힘입어 9%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의 증가를 기록했다. 올해는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매출 17조 9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SKT는 5일 오전 10시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열고 연결매출 17조6084억원, 영업이익 1조753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1.8%, 영업이익은 8.8% 상승했다. 순이익은 1조1459억원으로 확인됐다.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12조5892억원, 영업이익 1조4559억원, 순이익 1조597억원이다.

이날 김양섭 SK텔레콤 CFO(최고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SKT

재무책임자) 부사장은 “5G 보급률이 68%를 넘어가며, 5G 가입자와 무선매출 성장세가 전년 대비 완연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5G 가입자 순

증 성장외, 다양한 방법으로 무선매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SKT는 지난해 발표한 ‘AI 피라미드 전략’ 아래 추진해 온 ▲AI인프라 ▲AIX ▲AI 서비스 등 3대 사업 영역이 고르게 성장하며 발생한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AI 인프라 구간인 데이터센터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30% 성장했다. SKT는 올해 수도권에 신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진출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AI 반도체 전문기업 사피온은 지난해 11월 출시한 AI 반도체 ‘X330’도 올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한다. 연내 글로벌 통신사들과 통신사 특화 거대언어모델(LLM)도 선보일 계획이다.

엔터프라이즈 AI 사업에서는 지난

1월 선보인 기업 고객 특화형 혁신 AI 플랫폼 ‘엔터프라이즈 AI 마켓’을 오픈하고 수익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AIX 부문의 클라우드 사업은 클라우드 관리서비스(MSP)의 구독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이 146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6% 성장했다. 도심 항공교통(UAM) 사업 또한 지난해 국내 최초로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실제 UAM 기체를 선보이며 국내 사업 주도권을 선점해 왔다.

SK텔레콤은 올해부터 AI 개인비서 서비스 등을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8월 공식 출시한 개인비서 서비스 ‘에이닷’ 성과가 돋보인 만큼, AI 사업이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한화큐셀, 고효율 모듈 ‘큐트론 G2’ 출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글로벌 태양광 고객들의 고도화되는 수요에 맞춰 고효율 모듈 ‘큐트론 G2’ 시리즈를 한국과 유럽에 처음 출시한다.

한화큐셀은 태양광 모듈 신제품 ‘큐트론 G2’ (Q.TRON G2) 시리즈를 2월 한국과 유럽에서 동시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지배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퍼크(PERC)’ 셀·모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한 데 이어 ‘탑콘(TOPCon)’ 셀·모듈을 국내

기업 최초로 출시하게 된 것이다.

큐트론은 한화큐셀이 독자 개발한 탑콘 셀 제조 기술인 ‘퀀텀 네오(Q.ANTUMNEO)’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기존의 퍼크 셀보다 발전 효율을 약 1%p 높였다. ‘퀀텀 네오’ 기술은 발전 효율을 극대화해 유리한 N타입 웨이퍼에 전하의 이동을 조절하는 얇은 산화막을 형성해 탑콘 셀을 제조하는 한화큐셀만의 기술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日 코쿠사이 엘렉트릭, 韓 유진테크 제조

일본 코쿠사이 엘렉트릭이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 유진테크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쿠사이엘렉트릭 자회사인 국제엘렉트릭코리아는 유진테크에 특허 기술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코쿠사이엘렉트릭이 문제를 삼은 내용은 기관처리장치 등으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특허권을 한국

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에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코쿠사이엘렉트릭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유진테크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쿠사이엘렉트릭은 이번 제소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웅 기자 juk@

르노코리아자동차

중소 협력사 자금난 해소 물품대금 30억 조기 지급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부품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물품대금 약 30억원을 2월 8일에 조기 지급한다.

르노코리아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요가 집중되는 중소 협력사들의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물품대금 조기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명절 전 조기 지급한 전체 대금 규모는 약 2000억원에 이른다. 올 설 명절에는 총 73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17일 앞서 물품대금 지급이 결정되었다.

홍영진 르노코리아 구매본부장은 “수출 물류비 상승 기조에 최근 물류 지연까지 더해져 르노코리아와 협력사들이 수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설 명절을 맞게 되었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하반기 신차 경쟁력 강화에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